

홍무연간(洪武年間) 명(明)의 요동경략(遼東經略)과 조·명(朝明)관계

김경록*

1. 머리말
2. 여말선초 요동의 정세변화
3. 홍무제의 요동인식과 요동경략
4. 명의 요동경략과 고려·조선의 대응
5. 맺음말

1. 머리말

홍무제는 원말 격동기에 漢人群雄으로 시작하여 명 건국 및 북원 정벌을 추진하고 전통 한족의 제도를 부활시켜 몽골의 습속을 청산하고자 했다. 그는 재위 31년간 치열하게 정국을 주도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통치체제를 확립하고 명 중심 국제질서를 만들하고자 했다. 즉, 현실적인 무력기반의 통치뿐만 아니라 禮制와 法制를 정비하여 이념과 법적으로 황제의 권위를 확립하여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명조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정비하고자 했다. 홍무연간에 정비된 각종 제도는 명 일대에 걸쳐 준용되고, 청대에도 모방, 적용되었을 정도로 기본이 탄탄하였다.

홍무제는 원말 시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天命을 언급하며 복원정벌의 정당성을 천명했다. 홍무제가 지속적으로 복원정벌을 추진한 것은 명 건국의 명분이 천명에 따른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건국초기 제도정비, 공신세력의 발호 억제, 경제정책 추진과 민심안정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여 복원정벌의 군사작전에 전념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홍무제의 최대 관심사는 복원정벌에 있었으며, 大都 점령이후 복원과외의 전쟁에서 핵심지역은 요동이었다.

기존의 여말선초 요동에 관련한 연구는 국내외 학계의 높은 관심으로 방대하게 축적되었다.¹⁾ 그러나 이 시기 요동에 대한 연구는

1) 요동과 요동의 위소에 관련한 해외학계의 연구는 津田左右吉, 『津田左右吉全集』 권 11, 岩波書店, 1964; 箭内互, 「元末明初に所謂東寧府に就きて」『滿洲历史地理』2권, 丸善株式会社, 1940; 池内宏, 「高麗恭愍王朝の東寧府征伐に就いての考」『東洋學報』6, 東洋協會調査部, 1918; 和田清, 『東亞史研究』(滿洲篇), 東洋文庫, 1955; 清水泰次, 「明代の遼東經營」『東亞』8卷1號, 東亞經濟調査局, 1935; 陳文石, 『明清政治社會史論』, 台灣學生書局, 1991; 張勝彥, 「明太祖时代遼東之主權的确立與政略」『食貨月刊』5-11, 食貨月刊社, 1976; 李新峰, 「恭愍王后期明高麗關係與明蒙戰局」『韓國學論文集』7, 新華出版社, 1998; 刁書仁, 「洪武时期高麗, 李朝與明朝關係探析」『揚州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04-1; 王劍, 「納哈出盘踞遼東时明朝與高麗的關係」『中國邊疆史地研究』16-4, 2006; 張維華, 「明遼東“衛”“都衛”“都司”建置年代考略」『禹貢』1-4, 禹貢學會, 1934; 「明代遼東衛所建置考略」『禹貢』1-7, 禹貢學會, 1934; 李晋華, 「明代遼東歸附及衛所都司建置沿革」『禹貢』2-2, 禹貢學會, 1935; 朱誠如, 「明遼東都司二十五衛建置考辨」『遼寧師範學院學報』1980-6; 楊暘·李治亭·傅朗云, 「明代遼東都司及其衛的研究」『社會科學輯刊』1980-6; 劉謙, 「明遼東鎮長城及防禦考」, 文物出版社, 1989; 徐桂榮, 「明代遼東都司諸衛轄所考」『遼寧大學學報』113, 1992; 張士尊, 「明初遼東二十五衛建置考釋(續)」『鞍山師範學院學報』1994-1·2; 智喜軍, 「全遼志與遼東志之比較」『古籍整理研究學刊』1991-3 등이 있고, 여말선초 한중관계에 관련한 연구는 末松保和, 1941 「麗末鮮初に於ける對明關係」『靑丘史草』1; 김성준, 「고려와 원·명관계」『한국사』8, 국사편찬위원회, 1974; 황원구, 「여말선초의 대명관계」『한국사의 재조명』, 1975; 고석원, 「여말선초의 대명외교」『백산학보』23, 1977; 김순자, 「고려말 대몽국관계의 변화와 신흥유신의 사대론」『역사와 현실』15, 1995;

단순히 명의 요동진출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거나 고려와 명, 조선과 명의 관계사를 군사적 충돌양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많다. 여말선초 한중관계에서 핵심사항은 요동과 여진족에 대한 정책의 충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요동과 여진족 문제를 童猛哥帖木兒의 懷柔 및 來朝에서 시작하여 10處 여진인 관할권 확보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외교사건은 모두 태종대에 발생한 것으로 명 건국이후 홍무제의 요동경략과 태조대 요동 및 여진문제가 간과되었다.²⁾ 또한, 여말선초 요동의 정세변화과정은 많은 연구에서 구체적인 접근이 없이 원명교체라는 큰 틀로 설명하는 경향도 있다.³⁾

홍무연간 명의 遼東經略은 무엇보다 홍무제의 군사인식, 요동인식, 통치구상 등과 연관된다. 당시 명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대기적으로 시행되었던 경략방향과 조치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할

薛篁, 「明洪武年間明朝與高麗王朝關係略論」『歷史學研究』1997-4; 박순, 「고려말 동녕부정벌에 대하여」『중앙사론』4, 1985; 이익주, 「고려·원관계의 구조와 고려 후기 정치체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張士尊, 「高麗與北元關係對明與高麗關係的影響」『緩化師專學報』1997-1; 김혜원, 「고려 공민왕대 대외정책과 한인군웅」『백산학보』51, 1998; 姜龍范, 劉子敏, 「明太祖在位時期大明與高麗的關係」『延邊大學學報』1998-2; 박원호,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2002; 刁晝仁, 「洪武時期高麗李朝與明朝關係探析」『揚州大學學報』8-1, 2004; 윤은숙, 「나하추의 활동과 14세기말 동아시아 政勢」『명청사연구』28, 2007;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역사와현실』64, 2007 등이 있으며, 홍무제에 관련한 연구는 전순동, 『명왕조성립사연구』, 개신, 2000; 오함 저, 박원호 역, 『주원장전』 지식산업사, 2003; 김경록,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인식과 외교관계」『명청사연구』35, 2011; 「홍무제의 대외인식과 조공제도의 정비」『명청사연구』37, 2012; 「명초 홍무제의 통치구상과 대명물」『법사학연구』53, 2016; 임상훈, 「홍무제, 명대 환관 외교의 창시자 : 홍무제의 환관 억제와 그 실제」『동양사학연구』129, 2014 등이 있고, 요동에 관한 연구는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2003; 서인범, 「명대의 요동도사와 동녕위」『명청사연구』23, 2005; 남의현, 「명대 요동도사 지배의 한계에 관한 연구」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2006; 윤은숙, 『몽골제국의 만주지배사』 소나무, 2010. 및 윤은숙과 남의현의 일련의 연구가 있다.

2) 유재춘, 「여말선초 조명간 여진귀속 경쟁과 그 의의」『한일관계사연구』42, 2012.

3) 현재까지 원명교체가 요동의 정세변화를 상세히 분석한 연구는 윤은숙, 「북원과 명의 대립 : 요동문제를 중심으로」『동양사학연구』105, 2008이 유일하다.

수 있다. 이 시기의 한중관계사는 명의 요동경략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므로 홍무제의 요동경략을 분석한 뒤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글은 먼저 여말선초 요동의 정세를 정리하여 원대 요동 지역이 가지는 특징과 의미를 살피고, 홍무제의 요동에 대한 관심 및 정책이 시기별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홍무연간 정치, 외교,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홍무제의 요동경략에 따른 고려와 조선의 대응을 정치·외교적으로 정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 한중관계사에서 자칫 간과되었던 요동과 여진 족문제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여말선초 요동의 정세변화

여진족의 금을 멸망시키고 남송을 점령한 뒤 몽골은 원 제국의 정립을 천하에 반포했다. 원대 요동지역은 諸王에게 分封되었다. 요동은 칭기스칸의 아들들에게 분봉된 ‘西方王家’들과 달리 형제들에게 분봉된 ‘東方王家’의 分封地로 목축과 농업지대가 혼재된 지역이었다. 이는 동방왕가들이 지정학적 위치와 중원과의 경제·군사적 밀착을 가능하게 한 측면도 있었다.⁴⁾ 동방왕가 가운데 옷치긴(Otchigin, 斡赤斤) 왕가는 요동지역에 분봉되어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⁵⁾ 이 결과로 몽골, 거란, 여진 등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여 수시로 반란과 진압의 과정이 거듭되기도 했다. 요동지역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세력화를 기도하였던 나안(乃顔) 같은 제왕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⁶⁾ 이러한 제왕세력의 존재는 요동의 일반

4) 윤은숙, 『몽골제국의 만주지배사』 소나무, 2010. 참조.

5) 윤은숙, 「몽원제국기 옷치긴가의 활동과 세력 확장」 『역사문화연구』28, 2007; 고명수, 「몽골제국시기 옷치긴 왕가의 세력기반과 그 변화」 『사총』58, 2004. 참조.

행정조직과 제왕세력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원대 초기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원 중앙정부는 行省체제의 일환으로 요동을 통치하고자 했다.⁷⁾ 처음 쿠빌라이는 즉위 이전에 이미 전국에 30여 개의 路가 설치되어 각지의 할거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10道로 정리하고 宣撫司를 설치했다. 이때 蕃夷가 雜處하는 요동은 北京宣撫司에서 제어했다. 그러나 요동은 많은 민족이 혼재되어 있고, 제왕의 분봉지였기 때문에 선무사의 관원들이 통제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후 점진적으로 지방 최고관부로 行省을 설치하면서 요동은 처음 北京行省에 소속되었다가 별도로 遼陽行省이 설치되었다.

이와같이 원대 요동은 遼陽行省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구성원이 다양하여 몽골인, 거란인, 여진인, 한인, 고려인이 각각 혼재 및 집단세력으로 존재했다.⁸⁾ 1287년(지원 24) 처음 설치된 요양행성은 정식 명칭이 遼陽等處行中書省으로 몽골의 입장에서 요동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의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7개의 路, 1개의 府, 12개의 屬州, 10개의 屬縣으로 구성된 요양행성은 원말까지 요동지역의 최고 官府로 유지되었다.⁹⁾ 원은 요동의 제 민족 가운데 여진족에 대해 보다 강력한 압제를 가했는데, 이는 금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원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원대 요동의 여진족은 宣慰司 체제에 편입되어 실질적인 피정복민으로서 대우받았다.¹⁰⁾ 피정복민으로 여진족은 제국

6) 姚大力, 「乃顏之亂雜考」『元史及北方民族史研究集刊』7, 1983; 叢佩遠, 「元初乃顏哈丹之亂」『社會科學戰線』1993-3; 堀江雅明, 「ナヤンの反亂について(上)」『東洋史苑』34・35, 1990.

7) 최윤정, 「원대 동북지배와 요양행성」『동양사학연구』110, 2010.

8) 김한규, 『요동사』 문화과 지성사, 2003. 497~528쪽. 저자는 원대 요동은 금대 거란인이 여전히 강력한 잔여세력으로 존재하였듯이, 원대 여진인이 존재하여 충돌과 화합을 거듭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몽골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인과 고려인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거란인과 여진인이 적지 않게 거주했다고 분석했다.

9) 『원사』59, 地理志.

원의 물리력으로 활용되어 집단적으로 군대를 이루었다. 쿠빌라이 시대에 侍衛軍으로 역할하기도 했으며, 군대로 편성되지 않으면 民籍에 예속되어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동의 동도왕가는 일반 행정조직과의 갈등을 유발하며 독자적인 세력확대를 추구했다. 빈번한 반란에도 불구하고 원대에 이들 동도왕가를 유지한 것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원래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은 가족단위의 家産制에서 연유한 독특한 분봉제를 가지고 있었다.¹¹⁾ 다양한 세력과의 경제교역이 발달하면서 일족이 일정한 권력을 획득하면 분할하여 경영하도록 했는데, 쿠빌라이는 이를 군사적으로 활용하여 皇子와 宗王을 주요 군사거점에 분봉(分鎮, 出鎮)했다.¹²⁾ 출진한 황자와 종왕은 해당 관할지역을 가지고 실질적인 군사권을 행사하며, 해당지역의 행정기구였던 行省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즉, 驛站과 같은 행정, 征稅와 같은 재정, 그리고 독자적인 사법권을 행사하였다.¹³⁾

쿠빌라이 시대에 정립된 군사적 목적의 분봉은 漠北에서 西北, 西南, 江淮지역으로 이어져 반원형의 군사방어선을 구성했다. 그러나 요동에 분봉된 제왕들은 이에 속하지 않았다. 이는 원의 중앙정부 입장에서 대외군사적 출진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行省을 설치하여 통제했다. 한편으로 원의 군사방어선 바깥에 존재한 요동에 대한 군사적 견제책이 필요했다. 쿠빌라이는 燕京에 웅거한 五投下 諸部(잘라이트·콩기라트·이키레스·우르우트·망구트 등 유력 5부족)를 요동으로 옮겨가도록 함으로써 제왕의 반란 등을

10) 김한규, 위 책, 2003. 508~509쪽. 요동의 여진족은 弓矢之禁과 金銀의 생산 금지, 또한 진흥의 대상이기도 했다.

11) 姚大力, 「蒙古高原游牧國家分封制札記(上)」『元史及北方民族史研究集刊』11期, 1987.

12) 張帆, 「元朝的特性—蒙元史若干問題的思考」『學術思想評論』1輯, 遼寧大學出版社, 1997.

13) 李治安, 『元代分封制度研究』, 中華書局, 2007.

대비하도록 했다.¹⁴⁾ 오투하의 요동 이동, 기존 제왕세력, 여진족 및 고려인을 비롯한 제 세력 등 요동은 원말에 다양한 세력이 혼합되어 일원적인 통제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통제 불가능은 대도가 명에 의해 점령된 이후 요동에 다양한 복원세력이 존재했지만, 이들의 지향과 성향은 상호간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이유였다.

한편, 요동의 구성원 가운데 고려인의 존재는 매우 특이한 통치 체계를 초래했다. 요양행성의 핵심 지역이었던 遼陽路和 瀋陽路의 주된 인적 구성은 來附한 고려인들이었다. 원은 이미 쿠빌라이 시대에 瀋州를 세워 내항해온 고려인들을 거처하도록 하고 安撫高麗軍民總管府를 세워 심주에 治所를 설치했다.¹⁵⁾ 원래 중국인으로 고려에 보내졌던 洪福源 등이 이때 심주의 고려인들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아 세력을 확대했다.¹⁶⁾ 이후 요동의 고려인이 일원적으로 통제되는 것을 우려한 원에 의해 高麗軍民總管과 總管高麗女直漢軍萬戶府로 이원화된 통할기관이 되었다. 이들 두 통할기관은 정동행성에 편입되면서 다시 일원화되었지만, 요동지역이 고려와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요동과 고려의 연관성은 瀋王府를 통해 확인된다. 처음 1307년(大德 11) 원이 忠宣王을 심양왕으로 進封하고, 다음 해에 충렬왕이 죽고 충선왕이 즉위하자 원은 충선왕에게 功臣號를 내리고 심왕으로 改封하면서 일명 瀋陽王이라 하는 심왕은 시작되었다. 충선왕은 고려국왕과 심왕에 이중으로 책봉되었는데, 고려국왕은 藩國王인 반면, 심왕은 諸王의 位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원은 고려국왕이 심왕을 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지만, 충선왕이 아들을 고려국왕으로, 조카를 심왕으로 건의하면서 고려국왕과 심왕은 별도의 책봉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이후 상호 권력갈등을 초래하여 고려

14) 최윤정, 「원대 동북지배와 요양행성」 『동양사학연구』 110, 2010. 220~225쪽.

15) 『新元史』 권8, 世祖紀.

16) 『고려사』 권130, 열전43, 叛逆, 洪福源.

말 권력암투의 발단이 되었다.¹⁷⁾ 즉, 요동에 이주한 많은 고려인으로 인하여 요동은 고려의 입장에서 매우 밀접한 지역이었다. 원명교체기 고려에서 요동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게 된 점은 이러한 점이 원인이 되었다.

여말선초 요동과 관련되어 여원관계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존재는 東寧府와 雙城總管府이다. 원은 고려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설치하였는데, 고려의 영토를 원의 실질적인 지배에 두는 것으로 여원관계에서 민감한 문제였다. 동녕부와 쌍성총관부는 요양행성에서 총괄했다. 고려가 몽골에 저항하였던 시기에 고려 최씨정권에 반기를 들고 원에 투항한 변방세력이 자신들의 지배지역을 원에 위탁하면서 설치된 지역이 동녕부, 쌍성총관부였다. 이들 지역은 원의 직할령일 뿐만 아니라 고려의 북방변경이었다.¹⁸⁾ 고려의 입장에서 별도의 군사충돌 없이 지역 세력이 원에 투항하면서 자국의 영토가 원의 직할령으로 넘어간 것으로, 요동의 요양행성이 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국경분쟁으로 비화될 심각한 문제였다. 동녕부는 1290년, 쌍성총관부는 1356년에 각각 고려에 다시 소속되지만 일정기간 고려의 영토와 인민이 원에 넘어간 점은 여원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그 가운데 요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원명교체기 요동을 두고 고려와 명의 충돌을 예상할 수 있다.

추가로 요동의 지정학적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경을 수도로 한 명의 입장에서 요동은 여전히 복원과 연결된 먼 지역으로 비록

17)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2003. 511~518쪽.

18) 방동인, 「雙城總管府考(上)」 『관동사학』1, 1982; 「東寧府置廢小考」 『관동사학』2, 1984; 김구진, 「麗元의 領土紛爭과 그 歸屬問題-元代에 있어서 高麗本土와 東寧府, 雙城總管府, 耽羅總管府의 分離政策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7, 1989; 주채혁, 「몽골·고려사 연구의 재검토」 『국사관논총』8, 1989; 방동인, 「麗·元關係의 再檢討-雙城總管府와 東寧府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17, 1990; 이정신, 「쌍성총관부의 설립과 그 성격」 『한국사학보』18, 2004; 신안식, 「고려후기의 영토분쟁-쌍성총관부와 동녕부를 중심으로」 『군사』99, 2016.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된 고려가 배후에 있지만, 공민왕 사후 북원과 연계되는 등 외교적으로 비우호적인 지역이었다. 또한 지리적으로 요동은 산맥과 하천으로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이었으며, 명의 입장에서 해안선을 따라 세력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경제적으로 요동의 자연산물이 자급자족에 많은 한계가 있어 중원의 산물이 공급되어야 했다. 원대 요양행성이 설치되고, 명대 요동도사가 설치된 지역이 가장 비옥하지만, 군사적으로 요동의 전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면 군사축선이 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매우 험난한 지형이었다.

원명교체의 혼란기에 요동은 원말 홍군의 일파였던 관선생과 파두반이 太行山, 完州, 大同, 上都 등을 유린하고 요양을 점령한 뒤 고려까지 침입한 과정에서 1359년(지정 19) 요양이 함락되고 원 義州路總管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요동지역 자체적으로 세력간의 다툼이 잦아 원활한 생산활동이 제약되었는데, 요동지역이 큰 전쟁의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을 거치며 요양을 비롯한 요양행성의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어 이를 회복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3. 홍무제의 요동인식과 요동경략

북벌군이 원의 大都를 점령하자 홍무제는 요동의 최대 북원세력이었던 나하추에게 회유하는 문서를 보냈다.¹⁹⁾ 천명을 어겨 민심을 잃은 원을 대신하여 명이 건국되었음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원을

19) 『명태조실록』권52, 홍무 3년 5월 정사. “雲南六詔使者相望 交趾占城萬里修貢 高麗稱藩航海來庭”.

추격하여 격퇴시킬 것이고, 천명을 받든 명이 건국되자 雲南과 安南에서 사신을 보내오고, 더 남쪽의 交趾와 占城이 조공하며, 高麗가 藩邦을 칭하며 來朝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천하를 놓고 볼 때, 북원이 이미 북쪽으로 밀려나 사막으로 옮겨갔으며, 서쪽으로 일부 몽골 세력이 있지만 현재 축소되었고, 남쪽과 동쪽의 여러 세력이 귀부하였으니 고립무원의 신세를 벗어나 투항하라는 암묵적인 압박이었다. 원이 북쪽으로 쫓겨난 뒤 홍무제가 제일 먼저 나하추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문서를 보낸 점은 요동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무제가 판단할 때, 북쪽과 서쪽의 몽골세력은 이미 큰 타격을 입어 명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요동의 북원세력은 전혀 군사적 손실을 입지 않은 온전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큰 위협이었을 것이다.

홍무제는 건국이후 명의 정통성을 천명하기 위해 북원정벌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홍무제의 대외 전쟁은 당시 국제정세, 명의 각종 제도정비 및 체제안정, 명군의 군사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전개되었다. 홍무제는 대외 전쟁에 있어 최우선 목적은 북원의 정벌이었다. 이는 홍무제가 1368년 南郊에서 天地에 제사하며 올린 축문에

“우리 중국 인민의 군주는 宋의 운세가 다하매, 上帝께서는 사막의 眞人에게 명해 중국에 들어와 천하의 주인이 되게 하였나이다. 그 君臣, 부자, 자손들이 백여 년을 주인 노릇하다가 이제 운세가 끝이 났습니다. 그 천하의 토지와 백성을 호걸들이 쪼개어 다투었습니다. 상제께서 英賢을 보내어 신을 보좌하게 하였으므로 마침내 群雄을 평정하고 백성들을 田里에서 쉬게 하였으며, 지금의 땅의 둘레가 2만리입니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백성의 주인이 없으므로 반드시 帝號로 높이고자 하니, 신은 감히 사양할 수 없어 上帝와 皇祇에 감히 고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명년 정월 4일, 鍾山 남쪽에 제단을 쌓고 儀器를 갖추어 帝祇에게 밝혀 고하고자 하오니, 오직 上帝의 마음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²⁰⁾

라고 하였듯이 상제의 명이 원으로부터 홍무제 자신에게 왔음을 천명했다. 이러한 천명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천명을 어긴 북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수적이었다. 홍무제의 명 건국 정당성은 북원정벌을 통해 천하에 밝혀질 것이기에 홍무제의 북원정벌은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 건국직후 홍무제는 각종 제도정비와 점령 지역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한 민생정책 실시 등이 급선무였다. 이에 홍무제는 內治와 外征을 병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우선 홍무제는 명 건국 이전이었던 1364년(지정 24)에 군사력을 체계화하고자 部伍法을 제정했다.²⁰⁾ 부오법은 원대 편제였지만, 명은 이를 모방하여 指揮·千戶·百戶·總旗·小旗의 편제를 만들어 지휘는 병사 5,000명을, 천호는 1,000명을, 백호는 100명을, 총기는 50명을, 소기는 10명을 지휘하도록 했다. 위는 천호(5개)로, 천호는 백호(10개)로, 백호는 총기(2개)로, 총기는 소기(5개)로 구성하여 전략적인 군사거점에 최종적인 군구단위의 都指揮使司를 설치했다. 부오법의 제정은 안정적으로 군사동원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民籍과 구분되는 軍籍에 오른 인물을 대상으로 한 軍戶를 편제했다.

또한, 홍무제는 군사력 운용을 황제에게 집중되도록 하여 군사적 이탈이나 반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즉, 황제를 정점으로 중앙의 五軍都督府가 군령권을 행사하고 병부가 군정권을 행사하였으며, 군령권의 경우, 지방의 都指揮使司·指揮使司·千戶所·百戶所로 이어지는 군령체계를 만들었다. 군사지휘는 평시에 오군도독부가 휘하의 위소 병력을 관장하되 훈련상황이라도 황제의 명령이 없

20) 『명태조실록』권29, 홍무 원년 정월 을해. “上祀天地于南郊 即皇帝位 定有天下之號 曰大明建元洪武 祝曰 惟我中國人民之君 自宋運告終 帝命真人於沙漠 入中國爲天下主 其君父子及孫百有餘年 今運亦終 其天下土地人民豪傑分爭 惟臣帝賜英賢爲臣之輔 遂戡定(중략) 息民於田里 今地幅員二萬餘里 諸臣下皆曰 生民無主必欲推尊帝號 臣不敢辭是用 以今年正月四日於鍾山之陽 設壇備儀昭告上帝.”

21) 『명태조실록』권14, 4월 임술.

으면 함부로 병력을 움직일 수 없도록 했다. 군사 조발권은 철저히 황제에게 귀속시켰으며, 전쟁이 발생하면 황제가 차임한 오군도독부의 지휘관에게 위임된 병력한도 내에서 위소의 병력을 조발하도록 규정했다. 현장 지휘관이 관장하던 병력도 전쟁이 종료되면 즉시 해당 병력을 원래 위소로 복귀시키도록 규정했다. 이때 군장 및 병력을 철저히 점검하여 병력과 병기의 손실을 엄금했다. 이러한 군사지휘체계는 軍權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를 편제화한 것이 명대 위소체제였다.²²⁾ 이 뿐만 아니라 홍무제는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군사지휘체계를 위해 調發규정과 절차, 授節儀式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²³⁾

홍무제는 명 건국 이전 陳友諒, 張士誠, 方國珍 등 수 많은 세력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다. 이들과의 전쟁을 통해 홍무제는 많은 병력과 실전 경험을 확보했으며, 강남의 비옥한 토지를 확보하여 원과의 전쟁을 대비했다. 원과의 전쟁은 1367년(오 원년) 9월에 본격화되었다. 徐達이 지휘하는 정벌군은 거침없이 남북을 종횡하며 영역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주요 전역은 山東전투, 河南전투, 河北·大都전투, 山西전투, 陝甘전투, 北元정벌, 遼東전투 등이 있다.²⁴⁾ 홍무제의 북원정벌은 명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였다.²⁵⁾

먼저 홍무제는 대단위 북벌군을 출정시켜 신속하게 大都를 점령하고 연이어 북원을 추격하였다. 대도점령이후 홍무제는 몽골세력이 서북쪽에 집중되었다고 인식함과 동시에 雲南의 梁王세력과 요동의 나하추세력이 잔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선 북원과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용이하게 정벌이 가능한 남쪽의 양왕세력 축출을 위해

22) 『명사』권89, 志65, 兵1.

23) 『명태조실록』권33, 홍무 원년 7월 경술; 권47, 홍무 2년 12월 을축; 권65, 홍무 4년 5월 을묘..

24) 臺灣三軍大學 編, 『中國歷代戰爭史(明)』14, 中信出版社, 2013, 93~133쪽.

25) 『皇明詔令』卷1, 太祖高皇帝上, 論中原檄.

南征軍을 파견하여 수월하게 제압했다. 또한, 서북쪽의 괴뢰 테무르가 사망한 뒤 홍무제의 주요 군사목적은 북원과 연결된 요동지역에 집중되었다. 홍무제는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된 고려가 다시 북원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점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고려에 대해 외교·군사적 압박을 가하여 여원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했다.²⁶⁾ 즉, 고려에 군마조달을 강요하고, 고려사신의 입경을 금지하는 조치 등이었다.

1370년(홍무 3)에 홍무제는 徐達, 李文忠 등이 지휘하는 대규모 北征軍을 편성하여 북원을 압박했다. 북정군은 신속하게 上都를 점령하고, 그 여파로 원 순제가 사망하고 태자 아유신다라가 뒤를 계승하였다. 북정군이 승전보를 보고하자 홍무제는 요동에 집중하여 최대 북원세력이었던 나하추를 회유하고자 했다.²⁷⁾ 원말 사회혼란과 명의 건국이 가지는 정당성을 언급한 뒤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변방을 정복하였음을 통지하며, 雲南, 安南의 사신이 연이어 달려오고, 交趾와 占城이 만리에서 조공하고 高麗가 藩邦을 칭하며 바다를 건너 조공하였음을 과시하며 회유했다. 군사활동으로 하북의 군사력을 登州, 萊州, 浙東의 군선으로 요동과 심양으로 출병시킬 것을 위협했다.

이 해 9월까지 명군은 지속적으로 북원을 압박하였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정군 출정으로 요동에 파견할 군사적 여유는 없었다. 홍무제는 요동은 현상유지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자 했다. 당시 요양행성 평장 高家奴가 老鴉山에서, 평장 유익이 蓋州의 得利羸城에서 병력을 모아 상호 지원하며 金州, 復州 등지를 확보하고 있었다.²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동의 북원세력은 그 세력이 다원화하여 開原의 也先不花, 遼陽의 洪保保, 復州의 王哈喇不花, 得利

26)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현실』 64, 2007. 217~226쪽.

27) 『명태조실록』 권52, 홍무 3년 5월 정사.

28) 『명태조실록』 권56, 홍무 3년 9월.

羸城의 유익, 平頂山의 高家奴, 금산의 나하추 등이 갈등하여 충돌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也先不花, 高家奴, 나하추, 유익 등이 홍보보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갈등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원대 만연하였던 권력층의 정치적 갈등으로 보이며, 결국 연합세력이 홍보보를 포로로 잡고 승리했다. 홍보보는 정치적으로 세력을 잃었지만, 석방되어 득리영성에 소속 부족을 거느리고 주둔했다. 유익이 명군에 투항할 때, 홍보보도 함께 투항했지만, 爵賞에 불만을 품고 유익을 살해한 뒤 개원으로 도망했다.²⁹⁾

유익의 투항을 기회로 홍무제는 1371년(홍무 4) 遼東衛를 설치하여 명군의 전진기지로 삼았으며, 뒤이어 定遼都衛指揮使司를 설치하여 점령한 요동의 여러 지역을 총괄하도록 했다.³⁰⁾ 당시 요동의 북원세력은 군벌성격으로 북원정부에 대한 충성심은 없었다. 이러한 요동의 북원세력관세를 파악한 홍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벌보다는 광범위한 회유정책을 시행했다.

1371년(홍무 4) 원의 요양행성 평장이었던 劉益이 투항했다가 반발세력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유익이 거느렸던 세력은 반발세력을 축출하고 명군에 전적으로 편입되었다. 물론 이 때 아주 극소수의 명군은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 요동에 진입했다. 유익의 투항은 명의 요동전략 시작점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유익세력은 실질적으로 요동남부에 한정된 점에서 요동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1371년 유익의 투항은 단순한 병력의 투항뿐만 아니라 요동주군의 지도와 각종 호적, 군적 등을 지참하였기 때문에 홍무제가 요동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 정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유익이 제공한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홍무제는 요동에 대한

29) 『遼東志』권1, 地理, 山川, 遼陽.

30) 『명사』권134, 열전22, 葉旺; 『명태조실록』권66, 홍무 4년 6월.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요동경략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³¹⁾ 유익이 파견한 右丞 董遵, 僉院 楊賢 등이 가져온 표문을 접한 홍무제는 크게 치하했다. 군사여력이 없어 일단 요동 복원 병력의 증원진출 방지라는 당면과제를 인식한 홍무제는 대단위 군사작전 보다 회유를 통해 요동의 복원세력을 이간 및 귀속시키는 방식을 보다 확고하게 정했다. 유익의 투항하자 투항세력을 위무하고자 斷事官 甯立을 파견하고, 유익이 주둔하였던 지역에 遼東衛를 설치하고, 유익을 同知指揮事로 임명하는 등 홍무제의 후속조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신속한 명군의 요동투입이 아니라 투항세력에게 관직을 부여하고 기존의 통치지역을 관할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해 5월에 홍보보가 유익을 살해하고 요양으로 도망한 사건은 요동남부에 한정된 교두보확보를 위협하는 사건이었다.³²⁾ 이는 홍보보세력이 유익세력으로부터 이탈하여 나하추에게 들어감으로서 그나마 미약하게 확보된 요동남부의 명 세력이 더욱 약화된 것을 의미하였다. 요동반도를 남쪽에서부터 살펴보면, 金州, 復州, 蓋州, 海州, 遼陽으로 이어지는 축선인데, 처음 유익이 홍보보와 함께 투항했을 때는 금주에서 해주까지 포함되었지만, 홍보보세력의 개주, 해주가 이탈함으로써 요동반도의 최남단인 금주와 복주만이 명의 세력권에 남게 된 것이었다.³³⁾ 右丞 張良佐, 左丞 房勳 등이 參政 張革, 行樞密院副使 焦偶, 廉訪司僉事 李茂, 斷事 崔忽都 등을 파견하여 유익살해사건을 보고하자, 홍무제는 당시 요동의 복원세력이 강대하게 존재함을 인식했지만, 잔여 투항세력을 안무하고 이들로 하여금 복원세력에 대항하도록 했다. 홍무제는 요동이 지리적으로 동쪽에 치우쳐 있고 명군 파견을 통해

31) 『명태조실록』권61, 홍무 4년 2월 임오.

32) 『명태조실록』권65, 홍무 4년 5월 병인.

33) 『명태조실록』권66, 홍무 4년 6월 임인.

작전지원선이 길고 가늘게 연결되어 군사적인 불리함으로 遼陽山寨의 高家奴, 瀋陽古城의 知院 哈刺, 開原의 丞相 也先不花, 金山의 나하추 등 강력한 복원세력을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복주와 금주의 명 세력권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육로로 해주와 개주의 연결 통로가 확보되어야 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면 해로로 산동에서 넘어가야 했다. 또한, 요동반도로 연결되는 산동 역시 명이 확보하여 점령정책을 시행한지 겨우 4년밖에 안된 지역으로 기존의 원 세력이 여전히 잠복하고 있어 군정통치를 하던 지역이었다. 결국 홍무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吳立, 張良佐, 房勳 등을 遼東衛指揮僉事로 임명하고 군민을 위무하는 소극적인 방법이었다.

복원세력이 서쪽으로 진출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당시까지 요동에 대한 홍무제의 인식이었다.³⁴⁾ 홍무제의 회유책은 복원세력에 대해 투항을 권유하여 세력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목적보다는 복원정권을 압박함으로써 요동 복원세력이 정세불리를 인식하고 수세적으로 전환되길 바랐다.

당시 홍무제의 주된 군사적 관심은 복원정권에 대한 대대적 정벌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력 전장이 서북쪽과 동쪽에 형성되었다. 또한, 요동 복원세력의 서쪽 진출을 회유정책만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파악한 홍무제는 당시 가용한 최소의 병력을 투입하여 요동진출이 아닌 요동방어선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같은 해 7월에 定遼都衛를 설치하고, 馬雲, 葉旺을 都指揮使로, 吳泉, 馮祥을 同知로, 王德을 僉事로 임명했다.³⁵⁾ 그러나 정요도위가 실질적으로 요양에 설치된 것은 아니고, 금주와 복주를 비롯한 요동반도 남쪽에 설치되었다. 마을의 지휘하에 명군은 우선적으로 개주와 해주에 대한 점령전투를 수행했다. 산동의 登州와 萊州에서 해로로

34) 『명태조실록』권66, 홍무 4년 6월 경술.

35) 『명태조실록』권67, 홍무 4년 7월 신해.

金州에 주둔한 명군은 점진적으로 북진하여 먼저 平章 高家奴를 공격했다. 고가노와 전투에서 요양의 동쪽에 있는 평정산을 점령한 뒤 老鴉山寨를 공격했지만, 점령하지는 못했다. 명군의 북진에 필수적인 것은 군마였는데, 육로로 원활하게 조달되지 못해 명군의 전투력은 그리 강력하지 못했다. 이에 산둥에서 말을 해로로 수송하여 조달했다.³⁶⁾ 해가 바뀌어 靖海侯 吳禎이 수군을 동원하여 군량을 조달했다. 이때 호남성의 古州, 田州, 澧州 등지에서 만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홍무제는 급하게 衛國公 鄧愈를 征南將軍으로, 江夏侯 周德興과 江陰侯 吳良을 副將으로 임명하여 토벌하도록 했다.³⁷⁾ 실질적으로 1372년 1월까지 남쪽의 정벌군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북원정벌군을 편성하느라 명의 대규모 병력이 요동에 투입될 수는 없었다.

요동에 대규모 병력의 투입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군량의 지급도 어려웠다. 같은 해 2월에 호부에서 요동의 명군에게 조달되는 군량에 대해 아뢰는 내용을 통해 이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指揮使는 月米 5石, 同知는 4석, 僉事는 3석, 千戶는 2석, 百戶는 1石5斗를 월봉으로 지급했다.³⁸⁾ 실질적으로 당시 요동에 편제된 병력은 5,665명이었다.³⁹⁾ 이는 요동위의 군사들에게 지급된 전투용 갖옷의 수효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홍무제는 열악한 상황에서 요동에 파견된 장수와 군사들에 대한 위무를 통해 士氣를 유지하고자 했다. 遼東諸衛의 지휘에게 羅衣 1襲을, 千戶이하에게는 羅를 각 1疋씩 하사했다.⁴⁰⁾ 또한 요동이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으로 군사활동에 지장

36) 『명태조실록』권67, 홍무 4년 8월 기사.

37) 『명태조실록』권71, 홍무 5년 정월 갑술. 이때의 남정군은 삼로로 구성되어 등유가 營陽侯 楊燦과 宜春侯 黃彬을 이끌고 澧州로 나아가고, 주덕흥이 南雄侯 趙庸과 指揮僉事 左君弼을 이끌고 南寧으로 진격했으며, 오량이 平章 李伯昇을 이끌고 靖州로 진격했다.

38) 『명태조실록』권72, 홍무 5년 2월 신사.

39) 『명태조실록』권72, 홍무 5년 2월 기사.

40) 『명태조실록』권73, 홍무 5년 3월 무오.

이 많다는 이유로 군사들에게 衣鞋 3만개를 지급하고, 장교들에게는 綿裘를 하사하기도 했다.⁴¹⁾

기존의 투항세력 및 파견된 명군은 지속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며 북진했으며, 이 과정에 병력은 점차 확대되었다. 1372년 5월에 가면 전체 병력이 3만명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병력을 확대하면서 전투는 명군의 승리로 이어져 결국 이 해 6월에 금주, 복주, 개주까지 세력권을 확대했다.⁴²⁾ 요양까지 세력을 확대한 명군은 여전히 군량의 운송에 큰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전투력을 향상시키지는 못했다. 특히 나하추가 병력을 정비하여 명군을 위협했기 때문에 군사작전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홍무제는 都督僉事 仇成에게 직접 칙서를 내려 방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⁴³⁾ 또한 8월에는 산동의 군마를 요동으로 운송하여 전투에 활용하도록 했다.⁴⁴⁾

나하추를 비롯한 주요 북원세력이 명군을 지속적으로 위협하였지만, 북원세력의 분열과 투항도 있었다. 같은 해 9월에 平章 高家奴, 知樞密院 高大方, 同僉 高希古, 張海馬, 遼陽路總管 高斌 등이 투항했다.⁴⁵⁾ 일부 북원세력의 투항은 명군의 대규모 북원정벌군 출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당시 명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오정을 소환한 점에서 확인되듯이 고가노 등의 투항을 기점으로 홍무제는 더 이상 세력권을 확대하지 않았다.⁴⁶⁾

방어적인 군사작전으로 전환한 명군은 각 거점을 중심으로 북원세력의 서쪽 진출을 방어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에 나하추가 군량창고였던 牛家莊을 급습하여 약 10만 석의 군량을 불태우고, 5,000여명의 병력손실을 초래하자 홍무제는 방어책임자 都督僉事

41) 『명태조실록』권73, 홍무 5년 5월 정미.

42) 『명태조실록』권74, 홍무 5년 6월 병술.

43) 『명태조실록』권74, 홍무 5년 6월 신묘.

44) 『명태조실록』권75, 홍무 5년 8월 계사.

45) 『명태조실록』권76, 홍무 5년 9월 정사.

46) 『명태조실록』권76, 홍무 5년 11월 신미.

仇成을 永平衛 指揮使로 강등시켰다.⁴⁷⁾ 홍무제가 명군의 전체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시행했던 복원에 대한 북정군이 북원군에 의해 대패하고 병력손실을 입게 되자 요동에 대한 정책도 수세적인 모습으로 점철되었다. 복원에 대해서는 변방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방비에 주력하였던 당시의 전체 전황과 연관된 조치였으며, 소환하였던 靖海侯 오정을 정요위 지휘사로 삼아 기존의 방비체계를 전담하도록 했다.⁴⁸⁾ 명군은 더욱 방어에 주력했는데, 요동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할 것에 대비하여 위무정책을 병행했다. 홍무제는 이해 금주와 복주의 세금을 면제시켜 주기도 했다.⁴⁹⁾

응천부에 수도를 둔 상황에서 요동의 변경까지 명의 군사력을 파견하는 것도 문제였으며, 무엇보다 군수지원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북쪽으로 북원 원정군을 파견하고 동쪽으로 대단위 원정군을 파견하기도 부담스러웠다. 이에 홍무제는 정요위를 중심으로 지역적인 군사압박은 시행하되 대단위 군사활동보다 회유정책을 통해 원 잔존세력을 약화시키고, 고려와 이들 세력간 연대를 단절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회유정책의 바탕에는 홍무제의 군사인식 및 군사정책이 결코 확장위주의 강병책이 아니었음이 존재한다. 홍무제는 因地主義 원칙에 따라 원주민의 자치적인 정치권을 인정하되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⁰⁾

홍무제의 요동경략에 대한 열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홍무연간 실질적인 명의 군사역량을 정리하여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정확한 군사력은 분석하기 어렵더라도 대략적인 수치를 통해 전체 명군에 비하여 요동경략에 동원된 병력을 비교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47) 『명태조실록』권76, 홍무 5년 11월 임신.

48) 『명태조실록』권77, 홍무 5년 12월 임인.

49) 『명태조실록』권78, 홍무 6년 정월 계축.

50) 『명태조실록』권187, 홍무 20년 12월 임신.

1371년(홍무 4) 홍무제는 중앙군을 정비하여 京軍 207,800여명을 확보했다.⁵¹⁾ 한편, 1372년(홍무 5) 북원에 대한 대규모 정벌군의 실패는 홍무제의 대외군사전략에 큰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이후 홍무제는 수세적인 자세를 취하며 내부적인 군사력 강화 및 병제개편을 단행했다. 그 일례로 같은 해 설치된 親王護衛司는 처음 매 王府마다 3護衛로 구성되고, 衛는 左·右·前·後·中 5所로 구성됐다. 개별 所는 千戶 2명, 百戶 10명이 두어졌다.⁵²⁾

그러나 요동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지역이었다. 홍무제의 강력한 군사적 의지로 명 건국을 전후하여 공세적인 정벌전쟁이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무엇보다 원에 대한 북벌군이 원 세력을 북막지역으로 밀어냈으며, 서북쪽에서 웅거하던 코코 테무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남쪽으로 변방을 확대하여 평정하였기 때문에 1387년을 기점으로 남은 군사충돌지역은 요동이었다. 요동지역은 나하추를 비롯한 강력한 군사세력이 북원과 연결고리를 맺고 정세가 불안정한 고려의 움직임도 예의주시되었던 지역이었다.⁵³⁾

홍무제가 본격적으로 요동경략을 위한 군사작전을 시행한 시점은 1387년(홍무 20) 馮勝, 傅友德, 藍玉 등의 북벌군 20만명을 출진시켜 나하추를 압박하였을 때이다.⁵⁴⁾ 풍승의 군대는 요동의 거점인 大寧을 점령하고, 최대 원 잔존세력이었던 나하추를 추격하여 金山까지 점령하고, 奉集縣에 철령위를 설치했다.⁵⁵⁾ 홍무제의 적극적인 요동경략은 요동지역에서 원 잔존세력의 소멸과 명의 대여진 회유 정책으로 이어졌으며, 고려 및 뒤를 이은 조선과 정치·군사적 갈등을

51) 『명사』권89, 志65, 兵1.

52) 『명태조실록』권71, 홍무 5년 정월 입자.

53) 나하추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은숙, 「나하추의 활동과 14세기말 동아시아 정세」 『명청사연구』28, 2007. 을 참조할 것.

54) 『명태조실록』권180, 홍무 20년 정월 계축.

55) 『명태조실록』권182, 홍무 20년 6월 정유; 계묘; 정미; 권189, 홍무 21년 3월 신축.

초래하기도 했다.⁵⁶⁾

〈홍무 23년의 주요 지역 병력현황〉

구 분	군 사 수
요동군	79,600여명(4월에 94,188명으로 확대)
四川都督府使司 및 成都二護衛	53,000여명 - 윤4월에 四川都督府使司 38,300여명 - 9월 사천도지휘사사 병력 78,360명으로 확대
陝西都司 소속 및 西安 3護衛	76,400여명
貴州都司	28,600여명
北平二都司, 燕山諸護衛	124,600여명
西安等衛征進軍	24,600여명
北平屬衛, 三護衛	50,900여명
湖廣·雲南	南雄侯 趙庸이 모집한 신병이 179,500여명
南昌等衛	45,484명(9월에 32,100여명으로 축소)
湖廣의 長沙府	훈련된 將士는 18,023명
成都等衛 征進軍	55,200여명
陝西都司 소속 24위	124,911명(10월에 92,100여명 감소)
征北軍	49,305명
東昌府	훈련된 군사 19,900여명
京衛官軍	1,219,500여명
陝西의 延安等衛	42,400여명

한편, 구체적인 홍무연간 명군의 군사력을 살펴보면, 1390년(홍무 23) 기준으로 전국의 위소군사 이외에 주요 전투지역의 병력은 수시로 변화되었다. 나하추의 투항을 전후한 시기인 홍무 23년에 전체적으로 100만여명의 병력을 보유하고였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전국의 주요 변경 및 중앙의 황실호위 등 임무를 수행했다. 이 가운데 각종 정벌에 동원 가능한 병력수는 대략적으로 1/5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근대 군대는 기본적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성되는데, 핵심전력이었던 중앙군은 황실의 호위 및 내란의 진압이라는 목적에서 일정 병력수의 잔존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북원세력

56) 김경록,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 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35, 2011. 13~22쪽.

이 여전히 서북쪽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동에 파견하는 병력은 더욱 적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무제는 20여 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나하추를 압박했다.

이상과 같은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군수지원이 가능해야 했는데, 명의 세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 군수지원도 결정되었다. 1390년(홍무 23) 12월 기준으로 명의 전체 세량은 米麥豆穀 기준으로 31,607,600石이며, 紬絹布 기준으로 735,830匹이며, 絲綿·綿花·絨茶·礬鉛鐵·硃砂·水銀 등 기준으로 1,363,890斤이며, 錢鈔 기준으로 4,076,598錠이며, 黃金은 200兩, 白金은 29,830兩이었다.⁵⁷⁾

홍무제의 요동경략에 있어 요동이 가지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고려되었다. 요동은 광활한 목양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말 생산지로 주목되었다. 홍무연간에 비록 구체적인 마정을 시행하지는 못하였지만, 명은 몽골에 대한 방비차원에서 마정을 중시하여 국가에서 중점 관리하였다. 명대 馬市는 초기에 遼東馬市, 중기에 宣大馬市, 후기에 西北馬市가 중시되었다. 요동에 마시가 처음 설치된 것은 1405년(영락 3)이며, 開原(해서여진), 廣寧(울랑합)에 각각 설치되었다. 세부적인 馬市易例를 마련하였다.⁵⁸⁾ 마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부는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하였으며, 나하추를 마지막으로 요동에서 복원세력이 실질적으로 사라지자 명은 마정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자 行太僕寺, 苑馬寺 등과 같은 마정전문관리기구를 요동에 설치하였다.⁵⁹⁾

요동마정의 특징적인 사항 중 하나는 조선도 그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典農正 崔子雲이 말 1,500필을 요동에 전달하자 홍무제는 조서를 내려 定遼都衛의 여러 衛에서 養牧하도록 하였다.⁶⁰⁾ 遼東鎮守

57) 『명태조실록』권206, 홍무 23년 12월 무자.

58) 姚繼榮, 「明代遼東馬市述論」 『遼寧師範大學學報(社科版)』1998-4期, 85~86쪽.

59) 張士尊, 「明代遼東馬政探論」 『社會科學輯刊』110기, 1997, 94쪽.

孟善은 太僕寺 少卿 祝孟獻이 조선에서 1,000필의 市馬를 보내오자 이를 영락제에게 보고하고 처분을 요구하였다. 영락제는 말을 요동의 군마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⁶¹⁾ 거란, 여진, 조선으로 이어지는 마정을 통해 명은 군마를 조달하고, 요동의 제 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경제적인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였다.

〈표 1〉 永樂初期 遼東互市 交易馬의 品等과 價格

품등	上上等	上等	中等	下等	駒
가격	絹 8匹, 布 12匹	絹 4匹, 布 6匹	絹 3匹, 布 5匹	絹 2匹, 布 4匹	絹 1匹, 布 3匹

* 전거 : 『명태조실록』권40, 영락 3년 3월 갑인.

요동도사는 遼東互市를 통하여 여진족 및 몽고족을 비롯한 제 민족과의 교역을 담당하였다. 이때 요동도사에서 적극적으로 교역한 품목은 말이었으며, 품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었다. 요동의 마시와 마정이 본격화되면서 여진족은 비약적인 사회, 경제발전을 하였다.

홍무제의 요동경략에서 식량과 군량의 보급문제가 가장 난제 중에 하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무제는 屯田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다. 명은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변방의 요해지에 방어병력을 주둔시켰으며, 이곳의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군량을 지속적으로 운송하였다. 그러나 군량운송의 어려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둔전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홍무제는 둔전을 ‘興國之本, 在于強兵足食’으로 인식하고, 초기부터 ‘屯田之令’을 발표하였다.⁶²⁾ 둔전은 이적을 대비한 장구한 계책으로 인식되어 歲租가 징수되지 않았다.⁶³⁾ 특히, 요동은 산해관을 통하여 요양과 심양을 장악한 상황

60) 『명태조실록』권240, 홍무 28년 8월 정묘.

61) 『명태조실록』권20, 영락 원년 5월 병신.

62) 『명태조실록』권12, 계묘 2월 임신.

63) 『명태조실록』권56, 홍무 3년 9월 신묘.

에서 육로의 많은 부분이 몽골세력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보다 안전한 군량보급을 위해 산동에서 해로로 수송하였지만, 수송도중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산동에서의 군량 海運에 익사자가 다수 발생하자 요동에 둔전을 실시하여 해운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였다.⁶⁴⁾ 1394년(홍무 27)에 屯田之法이 실시되면서 요동의 제위 병의 1/3은 둔전을 경작하여 자급자족의 생산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⁶⁵⁾

명은 요동을 대몽골 방비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요동의 제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초무와 요동경락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둔전정책을 시행하고, 마정을 확대하였으며, 요동의 경제적 가치와 안정을 높이고자 하였다. 명 중심의 조공 체제를 형성함에 북쪽, 동북쪽의 제 세력을 편입시키고 이들의 조공에 있어 요동은 요충지로서 역할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동은 명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명의 이러한 요동인식과 정책 추진에 따라 요동의 정세는 급변하였으며, 그 파급결과는 조선의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은 요동을 군사안보의 완충지로 인식하고, 거주민이었던 여진족을 번병으로 인식하였다. 요동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한반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고려시대에 이미 최대 8~9만명의 인구가 요동으로 이주하였으며, 여원관계에서 교역이 지속되다가 원간섭기에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고려와 요동의 꾸준한 경제적 교류는 요동 지역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높였다.⁶⁶⁾ 역사적인 관련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동은 대명관계의 중간점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요동도사가 조명관계에서 외교절차상 중요하게 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64) 『명태조실록』권145, 홍무 15년 5월. 홍무제는 군량의 자체 해결을 강조하여 당시 요동뿐만 아니라 唐勝宗과 耿炳文에게 명하여 陝西都司에 둔전을 실시하였다.

65) 『명태종실록』권93, 영락 12년

66) 위은숙, 「13~14세기 고려와 요동의 경제적 교류」 『민족문화논총』34, 2006, 485~492쪽.

또한, 요동은 북방민족의 침입경로이자 역학서의 전래, 음운의 학습 경로 등 문화유입의 경로였다. 조선의 요동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지만, 영토확장의 실질적인 의미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요동의 정세변화에 관련된 주체들을 살펴보면, 조선, 명, 동몽골, 서몽골, 여진 등이며, 이들의 상호 충돌과 연합은 요동의 정세를 변화시켰다. 결국 명 중심의 조공체제에 명확하게 편입되지 않았던 제 세력의 성장으로 인하여 명의 요동정책과 요동방어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요동방어가 위협을 받으면 명의 대북방민족에 대한 방어정책이었던 九邊防禦戰略이 동요하고, 명은 北虜南倭로 표현되듯 조공체제를 형성하고도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요동은 전통적으로 교통의 요지로서 군사전략적 중요성이 높았다. 명대에는 동몽골이 존재하여 북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였으며, 이를 방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요동경략을 추진하여 위소제도를 정착시켰다. 이후 몽골에 대한 대비로 우량카이3위를 두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하던 여진족을 초무하여 기미위소를 설치하였다. 명은 올랑합과 여진족의 이주정책을 시행하고, 군사적 안정을 위하여 둔전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마정을 통해 요동의 제 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요동도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요동경략은 영락제이후 소극적인 방어위주로 전환되어 여진족에 대한 초무정책에 집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과 다양한 마찰을 초래하였다.

4. 명의 요동경략과 고려·조선의 대응

본장에서는 명의 요동경략 전개과정과 연계된 고려·조선의 대명

관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특히, 명의 요동경략과 홍무제의 황제 중심 일원적인 통치구상에서 발생하는 친왕의 분봉, 요동의 복원세력과 고려의 연계 단절을 위한 명의 외교압박과 고려의 대응 등이다.

원대 요동행성에 遼王, 寧王 등이 설치되어 다스렸던 전례를 모방하여 명 건국이후 홍무제는 親王이 변방의 주요 거점에 王府를 개설하여 군사방위의 핵심지역으로 삼았다. 1387년(홍무 20) 요동 지역의 최대 복원세력이었던 나하추가 투항하자 주변 복원세력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1388년(홍무 21)에 원의 요왕과 영왕이 臣屬을 거느리고 투항했다. 1392년(홍무 25)에 홍무제는 衛王 植을 요왕으로 임명하여 요동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요동지역에 封王된 遼王府는 廣寧에 두었으며, 寧王府는 大寧에 두었다. 1393년(홍무 26)에 조선에서 요동지역에 봉왕된 요왕부와 영왕부에 사신을 보내어 빙문하자 홍무제는 조선이 여진족을 초무하여 장차 요동을 침략하기 위해 사전에 요왕부와 영왕부에 사사로이 교류하였다고 질책하며 조선초기 조명관계에서 주요 외교문제였던 釁端사건을 유발시켰다. 요왕부와 영왕부는 이후 연왕에 의해 반란사건이 일어나자 건문제의 편에서 연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했다.

명의 요동인식과 정책은 명의 국제관계 인식과 대응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명 건국이후 최대 관심사는 몽골세력에 대한 방비였다. 이를 위해 명은 서북, 북변, 동북으로 이어지는 국경지역에 九邊이라는 都司·衛所體制를 갖추었다.⁶⁷⁾ 九邊은 명대 아홉개 변경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遼東, 薊州, 宣府, 大同, 偏關(山西), 榆林(延綏), 寧夏, 固原, 甘肅지역이다.

명의 요동정책은 요동도사를 통하여 시행되었다. 명의 요동정책은 군사정책, 대외정책, 경제정책, 문화정책 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

67) 劉仲華, 「試析分權制衡和以文制武思想的對明代九邊防務體制的影響」『寧夏社會科學』 97, 1999. 92쪽.

다. 군사정책은 內地와 차별되는 衛所制의 시행, 국경선과 방어선을 확보하기 위한 城堡의 수축, 통신선을 구축하기 위한 驛站·遞運所·急遞鋪·烽火臺의 설치, 정벌 등 전쟁 등이다. 대외정책은 조공 제도의 시행, 민족정책, 招撫정책, 이주정책 등이며, 경제정책은 교역을 위한 馬市와 互市, 屯田의 경영, 물량의 유통을 위한 海運과 河運의 정비, 驛路制의 정착 등이며, 문화정책은 교육의 확대 등이다. 이는 요동을 안정적으로 장악함으로써 주변 세력에 대한 통제 및 명 중심 조공체제의 확립을 도모한 것이다. 홍무, 영락제를 거치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 성격에서 축성중심의 방어적이고 소극적 성격으로 전환된 것에 비교하면 홍무연간의 요동경략이 가지는 적극성을 알 수 있다.

대외정책의 측면에서 요동문제는 민족정책과 연결되는데, 특히 최대 세력이었던 여진족에 대한 정책에 있어 명과 조선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였다. 조공체제에서 명은 책봉국이며, 조선은 조공국으로 형식상의 위치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책봉국과 조공국이 특정 사안을 두고 영향력 문제로 외교분쟁이 발생하면 형식논리에 있어 조공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당시 여진은 조공체제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수준을 형성하지 못하였던 여진과 달리 조선은 조공국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여진뿐만 아니라 여진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올랑합, 몽골의 국제적 지위를 고려하면, 조선초기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각종 외교정책이 가지는 명분과 실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명은 홍무제이후 조공체제에 있어 각급 지방정부의 조공, 소수민족과 土官의 조공, 屬國의 조공, 기타 국가와 지역의 조공 등 4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다.⁶⁸⁾ 지방정부, 소수민족 및 토관의 조공을 국내의 조공(內政)으로, 후자 2가지를 국외의 조공(外交)으로 인식하

68) 李雲泉, 『朝貢制度史論』 新華出版社, 2004, p.61.

였다. 요동의 여진족은 실제 소수민족으로 인식된 초무의 대상이었다. 여진족은 조공체제에서 내정에 해당되지만, 토관을 설치하여 다스리는 중국 내지의 소수민족과는 구별되어 동북오랑캐로 분류되었다. 이 때문에 명은 요동지역에 군정기관인 요동도사를 설치하고, 하부기구로 각 衛所를 여진거주지에 설치하였다. 이때, 衛는 요동도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느냐의 문제를 떠나 명 황제로부터 형식상이지만 印章을 하사받은 명의 관직체계에 포함되었다.

〈표 2〉 명의 조공체제 분류

구 분	내 용
東南夷上	朝鮮國, 日本國, 琉球國, 安南國, 眞臘國, 暹羅國, 占城國, 瓜哇國, 彭亨國, 百花國, 淳泥國, 須文達那國, 蘇門答刺國, 西洋瑣里國, 瑣里國, 覽邦國, 淡巴國
東南夷下	蘇祿國, 古麻刺國, 古里國, 滿刺加國, 娑羅國, 阿魯國, 榜葛刺國, 錫蘭山國, 拂林國, 柯枝國, 麻林國, 呂宋國, 磔里國, 日羅夏治國, 合貓里國, 古里班卒國, 忽魯謨斯國, 甘巴里國, 加異勒國, 祖法兒國, 溜山國, 阿哇國, 南巫里國, 急蘭丹國, 奇刺泥國, 夏刺比國, 窟察泥國, 烏沙刺錫國, 阿丹國, 魯密國, 彭加那國, 捨刺齊國, 八可意國, 坎巴夷晉國, 黑葛達國, 刺撒國, 不刺哇國, 木骨都東國, 南勃利國, 千里達國, 沙里灣泥國
北狄	迤北小王子(韃靼), 瓦剌三王(瓦剌), 順義王(韃靼), 朵顏衛, 福餘衛, 泰寧衛
東北夷	海西, 建州
西戎上	哈密, 安定衛, 罕東衛, 赤斤蒙古, 曲先衛, 土魯番, 火州, 柳陳城, 撒馬兒罕, 魯迷, 天方國, 默德那國
西戎下	烏斯藏, 長河西魚通寧遠等處, 朶甘思, 董卜韓胡, 金川寺番僧, 雜谷安撫司, 打喇兒寨, 達思蠻長官司, 長寧安撫司, 韓胡碣怯列寺, 洮岷等處番僧, 洮岷等處番族
土官	湖廣土官, 廣西土官, 四川土官, 雲南土官, 貴州土官, 腹裏土官

전거 : 『大明會典』 禮部, 朝貢.

조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건주여진의 경우, 조공체제에서 형식상으로 土官을 통한 통제를 받는 內政의 대상이 아니지만, 초무를 통해 요동도사 휘하의 관직체계에 포함되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위는 없었지만, 명으로부터 동북의 외교대상으로 상정되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외교상 이중적인 성격은 가지게 된 이유는 첫째, 요동지역을 실질적인 명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였고, 둘째,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족의 제 세력을 일원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웠으며, 셋째, 여진족보다 몽골에 대한 방비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명의 입장에서 명 중심 조공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요동의 제 세력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제 세력은 민족단위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소수민족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명의 조공체제로 제 세력을 불러들이는 초무정책의 시행, 초무에 응한 세력에 대한 이주정책, 조공체제에 편입된 세력과 편입되지 않는 세력에 대한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엄격한 조공제도의 정비 및 시행, 편입되지 않는 세력을 위협세력으로 규정하고 강행하는 정벌전쟁 등이 있으며, 그리고 차별적인 군사, 경제, 문화정책이 연관성을 가진다.

요동의 전략적 가치는 오랜 역사성을 가진다. 당장 원대에는 요양행성이 존재하여 요동의 제 세력을 견제하였다. 원명교체기에 요동은 북원세력이 잔존하여 명의 국가안보에 위협요소였다. 지리적인 조건은 명의 對몽골정책에 중심에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광활한 요동의 전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명의 요동 인식은 기본적으로 변방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내지로서 인식하기보다는 관내지역을 방어하고 제 세력들을 羈靡하는 지역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홍무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일련의 요동정책을 통해 확인된다.

명의 요동인식 및 정책의 시작은 遼陽行省平章 劉益이 兵馬와 錢糧, 輿地 등을 가지고 항복하면서였다.⁶⁹⁾ 홍무 4년(1371) 2월 20일에 유익이 右丞 董遵과 僉院 楊允賢을 명에 보내어 표문을 전달하고 귀순을 표명하자 명은 得利羸城, 金州, 復州, 海州, 盖州 등지의 각종 城池, 軍民을 확보하고 기타 북원 세력이 따라서 귀순할 것을

69) 『吏文』卷2, 前原平章劉益投順開設遼東衛指揮使司事.

기대하고 유익을 遼東衛指揮使司에 임명하였다. 上都까지 확보하고 도 요동진출이 어려웠던 명의 입장에서 유익의 귀순은 요동의 전략적 인식을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유익을 遼東衛指揮使司知로 고쳐 임명하는 誥命을 大都督府 斷事官 吳立同, 黃儔, 王哈刺不花를 보내어 段匹 등과 함께 전달하였다. 홍무제는 유익에게 요동의 城池와 軍馬를 點視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는 유익을 앞세워 북원세력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고려에 유익의 귀순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명의 요동진출을 과시함과 동시에 고려의 요동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이후 1371년(홍무 4)에 산동의 해로를 통해 요양과 심양을 점령 후 定遼都指揮使司를 설치하고, 1375년(홍무 8)에 定遼都衛를 遼東都指揮使司로 개편하였다. 1377년(홍무 10)에 소속 州縣을 모두 군사체계의 衛로 개편하는 등 군사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이 무렵 명은 요동도사 휘하에 12위를 설치하여 동북지역에 대한 전략적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1386년(홍무 19)의 金山戰役을 전후하여 요동은 25위 체제로 개편되었다.⁷⁰⁾

1387년(홍무 20)에 나하추가 항복하자 요동 북서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大寧城에 大寧都指揮使司 설치하였다. 나하추의 항복은 명의 요동정책에 있어 일대 전환점으로 요동에서 명에 대항할 거대세력이 사라진 점과 요동과 요서를 연결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요동경략을 전개할 수 있었다. 1389년(홍무 22)에 몽고인의 귀화를 통제하기 위해 太寧, 朵顏, 福餘 三衛指揮使司를 兀良哈에 설치하였다. 홍무제는 요동도사의 방비를 강화하고, 요동관련 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고자 조선의 사행을 들이지 말도록 하고, 左軍都督府로 하여금 요동의 金州, 復州, 海州, 盖州 등 4주에 關隘를 增置

70) 張士尊, 「明初遼東二十五衛建置考釋」『鞍山師範學院學報』1994-1期; 「明初遼東二十五衛建置考釋(續)」『鞍山師範學院學報』1994-2期.

하고, 城隍을 수리하고, 기병으로 순찰하도록 하는 등 요동방비를 강화하였다.⁷¹⁾ 요동정책에 있어 조선을 견제하는 흐름은 고려말부터 시작되었다. 요동도사에게 일체 사행왕래를 금지하고 고려와의 접촉을 엄금한다는 칙유를 내리는 등 고려에 대하여 경계를 강화하였다.⁷²⁾ 군사적으로도 요동도사 휘하의 鐵嶺衛, 復州衛의 城池를 수리하는 등 군사시설을 확충하였다.⁷³⁾

요동도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명의 요동개발은 기존의 황무지를 새롭게 개발하였다기 보다는 원말까지 구축된 사회·경제적 생활기반을 회복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요동도사가 요동의 일부지역만을 실질적인 세력권으로 확보하였던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제반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는 제한되었다. 이는 초기부터 시행되었던 초무정책에서 살펴볼 수 있다. 명의 요동 제 세력에 대한 초무는 몽골관련 초무와 여진관련 초무 등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몽골관련 초무는 요동 서북쪽에 위협세력으로 존재한 달단에 대한 초무와 달단의 동쪽에 있던 兀良哈지역에 대한 초무였다. 1389년(홍무 22) 홍무제는 大寧 주변의 울랑합 지역에 朶顏衛福餘衛泰寧衛를 설치하고 북원의 遼王 阿札失里를 泰寧衛指揮使로 임명하여 초무했다.⁷⁴⁾ 여진관련 초무는 요동의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거주한 여진 제 세력에 대한 초무였으며, 특히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건주여진에 대한 초무가 중점이었다.

또한, 명은 초무정책과 동시에 기존 명의 위소체계에 편제되었다가 전란 및 기타 사유로 도망한 인구에 대한 송환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원을 대신하여 요동을 장악하면서 원의 행정편제에 소속된 인구는 모두 명의 위소체제에 편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영락제

71) 『명태조실록』권229, 홍무 26년 7월 신해.

72) 『명태조실록』권145, 홍무 15년 5월 정사.

73) 『명태조실록』권21, 영락 원년 6년 무인.

74) 『명태조실록』권196, 홍무 22년 5월 계사.

의 등극과정에서 도망한 인구의 송환, 요동의 제 세력에 포로가 된 한인의 송환 등을 추진하였다.⁷⁵⁾

국제정세의 변화는 국내 정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국가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진다. 원명교체기에 국제정세의 변화는 공민왕의 개혁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이후 요동문제를 중심으로 공민왕대 여명관계, 여원관계가 전개되었다. 고려는 점차 원 중심 조공체제에서 이탈하여 명 중심의 조공체제에 편입되었으며, 한족중심의 중화주의에 입각한 조공체제를 지향한 명의 적극적인 입장과 달리 요동에서 복원세력이라는 현실적인 외교카드를 활용한 유연한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고려의 대외관계에 있어 핵심은 요동이었으며, 명은 나하추를 비롯한 복원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려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고려는 지속적으로 복원세력과 교류하면서 요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⁷⁶⁾

고려의 친원정책을 경험한 명 홍무제는 요동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요동봉쇄정책을 추진하였다.⁷⁷⁾ 이러한 요동봉쇄정책은 조선 건국이후 태조대까지 지속되어 조명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 홍무제의 요동봉쇄정책은 요동을 경유한 입조의 금지, 요동인구의 송환요구, 공마요구, 조선의 요동정세 염탐방지 등이었다. 명은 요동봉쇄에 이어 요동도사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요동경략을 추진하였다.

적극적인 명의 요동경략은 요동지역의 제 세력을 초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동 북쪽의 올랑합에 대한 초무와 요동 동쪽의 여진에 대한 초무가 추진되었다. 물론 황제로서의 권위와 위엄으로 가식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었지만 홍무제가 권근에게 내려준 御製詩에서 요동에서 전쟁이후 생업에 종사하

75) 김경록, 「조선초기 군인송환문제와 조명간 군사외교」 『군사』83, 2012.

76)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64, 2007.

77) 남의현, 「명 태조의 요동폐쇄정책」 『강원사학』17:18합집, 2002. 285~291쪽.

는 모습을 노래한 점은 요동도사를 중심으로 요동경략을 추진하되 직접적인 정벌보다는 초무를 통해 명 중심 조공체제를 지향하였던 홍무제의 국제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⁷⁸⁾ 조선의 북쪽에서 거주하던 건주여진에 대한 초무는 조명관계에서 외교사안으로 등장하였다.

홍무제의 대조선인식은 欽差內史 黃永奇, 崔淵에 의해 조선에 전달된 手詔에 나타나 있다. 우호적인 대조선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예상되던 명이 조명관계에서 강압적인 면을 보이기 시작한 최초 사건인 혼단사건이 발생한 것이다.⁷⁹⁾

- ① 浙東·浙西의 백성 중에서 불량한 무리들이 조선을 위하여 소식을 보고하는 것으로 명나라의 국경 내에서 분란을 일으킴.
- ② 사람을 보내어 遼東에 이르러 布帛과 金銀의 종류를 가지고 거짓으로 行禮함으로써 事由로 삼았으나, 실제로는 명나라의 邊將을 피는 것.
- ③ 몰래 사람을 보내어 女眞을 꺾여 家眷 5백여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몰래 건너 조선으로 편입시키고자 함.
- ④ 입으로는 신하라 일컫고 들어와 朝貢한다 하면서도, 매양 말을 가져올 때마다 말 기른 사람으로 하여금 뽑아 보내게 하니, 말은 모두 느리고, 또한 모두 타서 피로한 것들이니, 업신여김의 하나.
- ⑤ 國號를 고치는 一節은 사람을 보내어 詔旨를 청하므로, 조선의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했는데, 朝鮮을 계승하여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화답이 없는 것이 업신여김의 하나.

혼단사건의 발단은 반이성계 세력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에 대한 홍무제의 반응은 고려말부터 시해사건, 모반사건, 요동에 영향력 확대 등으로 부정적이었다. 手詔의 내용을 통해 여진족과 조선의 연결가능성에 대한 경계 뿐만 아니라 중국통일이 완성된 상황에서 번국과 연결된 내부의 세력을 경계하고, 이들과 연

78) 『양춘집』 賜朝鮮國秀才權近, 使經遼左.

79) 『명태조실록』 권228, 홍무 26년 6월 임진;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5월 정묘.

결될 가능성이 있는 조선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에서 사신을 遼王府와 寧王府에 보내어 聘問한 사실을 ‘臣子無外交’의 관념에서 질책한 것이다.⁸⁰⁾ 또한, 아직 통치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요동지역에 조선인이 왕래하며, 여진족과 통교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고려말 요동정벌의 사례가 있음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조선이 요동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요동인구 구성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여진족이 조선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요동개발의 기초로 삼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조선의 요동에 대한 인식은 복합적이었다.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종의 발생지로서 동북면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거주민이었던 여진족에 대한 회유와 징벌을 주도하였다.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의 동향에 큰 영향을 주었던 명의 요동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장과정, 여진족과 올랑합의 대립, 여진족에 대한 초무와 몽골에 대한 영락제의 친정이 요동정세에 가져올 결과를 분석하고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대응을 마련하였다. 요동을 실질적인 조선의 수복대상지로 인식하기보다는 명의 영향력을 인정하되 직접통치지역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등 제 세력의 공유지 개념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고토수복이란 측면에서 요동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요동에 대한 관심은 제고하되 요동정세에 따른 실질적인 조선의 영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대비하였다. 태종대 대외정책의 입안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하륜은 요동에 대한 적극적인 수복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대를 신중히 할 것을 태종에게 제안하고, 건국초기에 명 중심 조공체제에 안정적으

80)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4월 경진. 전 密直使 朴原을 보내어 遼王府를, 전 密直副使 柳雲을 보내어 寧王府를 聘問하였다.

로 편입되어 왕조의 권위와 지배체제의 안정을 추구하였다.

“(전략)…임금과 신하간의 분수는 마치 높은 하늘과 낮은 땅처럼 문란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대국을 섬기는 예를 정말 신중히 지키지 않을 수 없으며, 大小의 형세가 마치 뒤섞일 수 없는 黑白과 같은 것이고 보면 대국을 섬기는 예 또한 신중히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중략)… 무인년에 이르러 요동을 정벌하자는 의논이 다시 제기되어 번고(번고)도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태조께서 정승 趙浚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 의논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요동 정벌이 취소됨으로써 우리 동방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였습니다.(후략)…”⁸¹⁾

라는 인식을 가졌다.

명의 요동정책은 조선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명의 조선침략에 대한 우려보다는 여진족을 비롯한 세력의 이동 및 入寇에 대한 방비가 우선적인 경계였다. 물론 태종의 영락제에 대한 인식과 요동총병관 王狗兒에 대한 경계도 있었지만,⁸²⁾ 조공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영락제의 친정으로 인한 요동의 정세변화, 여진족과 올랑합을 비롯한 요동의 제 세력이 조선국경선 근처로 남하하는 것, 전란으로 인한 만산군의 유입 등에 대한 경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⁸³⁾

태종은 영락제의 친정과 명의 직접적인 침략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하였다. 1409년(태종 9) 명의 대장군 丘福이 10만 대군으로 韃靼정벌을 시도하자 국경지역에 ‘不虞之變’에 대비

81) 『春亭集』卷6, 封事, 謹事大. “(前略)…謂君臣之分 如天尊地卑之不可紊也 則事大之禮 固不可以不謹矣 大小之勢 如白黑之不可以相混也 則事大之禮 亦不容於不謹矣 …(中略)…歲至戊寅 攻遼之議復萌 而變又生焉 猶幸太祖聽用政丞趙浚之獻言 其議雖萌 而其事乃寢 使吾東民之類 不至於糜爛…(後略)”

82) 『태종실록』권13, 태종 7년 4월 임진; 권14, 태종 7년 7월 임술; 8월 정유; 경자.

83) 『태종실록』권18, 태종 9년 8월 임술; 11월 갑술; 무인; 임오; 『명태종실록』권96, 영락 7년 9월 갑술.

하도록 하였으며, 구복의 정벌이 실패하고 명의 군마요청이 있자 명의 군사력이 요동지역을 넘어 조선까지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다.⁸⁴⁾ '靖難之役'을 거치면서 조선의 효과적인 대명관계 전개는 고명과 인장을 받아 왕실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지만, 요동과 관련하여 고려출신 동녕위 소속 만산군을 관압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명의 적극적인 초무정책에 따라 조선은 국경의 주변에서 변병으로 인식하였던 여진족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여진의 종족을 오랑캐(兀良哈), 오도리(吾都里), 우디캐(兀狄哈)로 구분하였다. 또한 명나라의 여진구분에 따라 명칭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野人이라고 통칭하기도 하였다.

태조는 조선 건국 원년(1392)에 여진출신 李之蘭을 보내어 甲州와 孔州에 성을 쌓게 하고, 1398년(태조 7)에는 정도전을 동북면으로 보내어 州府郡縣의 地界를 정하고 穆祖의 鴻業之地인 공주의 토성을 石城으로 개축한 다음, 그 곳에 慶源府를 설치하였다. 태종은 처음에는 회유책을 쓰다가 나중에는 강경책을 취하여 정벌을 단행하였지만, 의외로 강력한 여진의 저항을 받고 慶源府를 鏡城까지 물리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을 당하기도 하였다. 초기에 최대의 여진 초무관련 사건은 태종대 발생하였다.

실제 여진족의 민족적 통일이 늦어진 것은 내적 요인도 있지만, 명의 여진분열책략도 크게 작용하였다. 여진족에 대한 분열책략은 조선에서도 시도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명나라의 적극적인 분열책략과 차이가 있다. 조선은 동북면-서북면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을 조선의 농경생활 문화권으로 흡수하여 朝鮮化하려는 것으로 여진인을 조선의 藩胡로 삼는 것이었다. 분열책략이라기 보다는 낮은 문화수준의 여진인에게 고급문화를 전파한 것이다. 태조~태종

84) 『태종실록』권18, 태종 9년 10월 경술; 기미; 경신.

대까지 조선의 대여진정책의 대상은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으로 同化政策의 시행으로 조선의 編戶가 된 여진족과 來朝하여 수직한 여진족이었다.

5. 맺음말

원명교체의 격동기에 요동은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 중심 국제질서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요동의 여러 세력은 복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결집보다는 개별 세력들의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원말 시대문제를 해결하고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중앙집권체제를 추구하였던 홍무제는 명 건국초기 다양한 현안문제로 인하여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요동에 집중하지 못했다.

요동은 원대 요양행성체제로 통치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몽골, 여진, 거란, 고려, 한족 등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였던 지역이었다. 특히, 고려와의 인접성과 다수의 고려인이 이주하였다는 점에서 요동은 고려와의 관계가 밀접했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성은 원명교체가 고려가 복원과 관계를 지속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복원정벌의 일정한 성과와 내부적으로 황제 중심의 통치체제를 확립한 홍무제는 홍무 2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요동경략을 추진했다. 복원세력의 제압 및 요동의 동쪽에 밀집해 거주하던 여진족을 회유하는 초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요동경략의 근본적인 한계는 군정체제의 요동도사 중심 통치는 여진족의 회유 및 관직수여가 기미성격이었던 점에 있었다. 이는 직접통치가 아닌 간접통치의 방식을 띄었기 때문에 통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요동경략에서 요동도사 중심의 한정된 통치를 지향하였던 점은 홍무제의 국제인식에서 기인했다. 그러면서도 요동과 여진족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신생 조선과 갈등을 초래하여 외교적으로 조선을 압박하는 강압정책을 추진했다.

고려말 공민왕대 친명정책을 천명하면서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 중심 국제질서로 전환되었지만, 이후 국내 정세변화로 여명관계는 긴장관계로 이어졌다. 홍무제는 요동경략을 위한 초기 고려와 북원의 연결을 차단하고자 하였지만, 실질적인 압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나하추의 투항이후 요동의 북원세력이 사라지자 홍무제는 고려를 보다 압박하여 요동과 여진족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는 고려의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고려의 요동정벌로 이어졌다. 요동정벌에서 회군한 이성계는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고 친명정책을 표방했지만, 홍무제의 요동정책과 충돌하는 외교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긴장과 충돌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조선 건국이후 왕조개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선의 봉전외교는 친명정책으로 표출되었지만, 요동지역과 여진족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홍무제의 대외정책과 충돌하면서 표전문사건, 혼단사건 등이 발생했다. 홍무연간의 요동경략은 실질적인 점령 및 직접통치보다는 명 중심 국제질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주도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요동경략을 완벽하게 달성하기에 명의 역량이 부족하여 요동과 여진족은 반자치적인 형태로 존재했다. 이는 조선 건국기 조명관계의 긴장을 초래한 배경이 되었다.

[원고투고일: 2017.1.12., 심사수정일: 2017.2.19, 게재확정일: 2017.2.20.]

주제어 : 요동경략(遼東經略), 홍무제(洪武帝), 요양행성(遼陽行省), 요동도사(遼東都司), 원 중심 국제질서(元 中心 國際秩序), 명 중심 국제질서(明 中心 國際秩序), 여진(女眞), 조선(朝鮮)

<ABSTRACT>

The Governing Liaodong(遼東經略) of Ming and the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Ming in the Hong-wu, the Founder of Ming, period

Kim, Kyeong-Lok

The Ming Dynasty is the history of Chinese lasted by Han established unified dynasty, in its founding to destruction in more than 200 years, the edge of the Liaodong army has always being a special group to defend the borders of the existence. During the political rapid changes period when Yuan(元) was replace by Ming(明), the Liadong(遼東) was transformed from the Yuan world order(元 中心 國際秩序) to the Ming world order(明 中心 國際秩序). In this process, various political forces on the Liadong showed strong differentiation of the centrifugal forces of the individual forces rather than the gathering of the forces centered on North-Yuan(北元). In the end of Yuan era, Emperor Hong-wu(洪武帝), who had solved the problems of the times and pursued a central centralized system of emperors, failed to concentrate on the Liadong despite its strategic importance due to various issues at the beginning of the Ming Dynasty.

The Liadong was dominated by Liao-yang Branch Secretariats(遼陽行省) during the Yuan Dynasty, but in reality it was a region where various forces such as Mongolia(蒙古), Jurchen(女真), Khitan(契丹), Goryo(高麗) and Han(漢族) were present. In particular, the proximity to Goryo and the large number of Goryo dynasties emigrated from the Liadong were closely related to Goryo. This close relationship was also the cause of Koryo's relationship with Yuan Dynasty during the period of replacing Yuan with Ming.

Emperor Hong-wu, who established certain achievements of the Yuan Dynasty and the ruling system of the emperor internally, promoted the full-scale governing Liadong from the 20th year of Hong-wu. He suppressed the Yuan Dynasty and continued to pursue a policy of conciliation against

the Jurchen living in the east of the Liadong. However,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governing Liadong was that rule of military government center of Liadong Regional Military Commission(遼東都司) was deceitful, such as conciliating the Jurchen and awarding office. This was not direct control, but indirect control, which made it impossible to secure the stability of government. The reason for the limited governance centered on the Liadong Regional Military Commission of emperor Hong-wu originated from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emperor Hong-wu. In the meantime, he took a jurisdiction over the Liadong and the Jurchen and pushed for a coercive policy of diplomatic pressure on Joseon by causing a conflict with newly established Joseon.

Key words : The Governing Liaodong(遼東經略), Emperor Hong-wu(洪武帝), Liao-yang Branch Secretariats(遼陽行省), Liadong Regional Military Commission(遼東都司), Yuan world order(元 中心 國際秩序), Ming world order(明 中心 國際秩序), the Jurchen(女真), Joseon(朝鮮)